

호주 멜버른 출장자료



# [목 차]

│. 호주 국가 개황	1
Ⅱ. 무역관 관할지역 개황	3
Ⅲ. 호주 경제/무역 동향	5
IV. 체류 참고자료 ·····	15
∨. 무역관 및 직원 연락처	18
VI. <b>기타 정보 ···································</b>	19





# Ⅰ. 호주 국가 개황

# 1. 일반 현황

국 명	호주(Commonwealth of Australia)					
위 치	오세아니아(동경 113°9′-153°39′, 남위 10°41′-43°39′)					
71 /1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위치					
면 적	768만㎢(한반도의 약 35배 / 남한의 약 80배)					
	- 전체 면적의 20% 사막					
기 후	남부(온대), 북부 및 서부(열대), 내륙(대륙성)					
/I +	남극을 제외하면 가장 건조한 대륙					
행정구역	6州(state) 2準州(territory)					
수 도	캔버라					
인 구	2,477만명					
주요 도시	시드니(약503만명), 멜버른(472만명), 브리스번(236만명),					
(인구)	퍼스(202만명), 아들레이드(132만명)					
민 족	유럽계(85%), 아시아계(12%), 아프리카계(2.5%), 기타(0.5%)					
언 어	영어(공용어), 기타 400여개의 언어					
종 교	천주교(22.6%), 영국성공회(17%), 이슬람교(2.6%), 불교(2.4%) 등					
사법체계	영국식 사법 체제를 따름					
건국(독립)일	1901년 1월 26일					
정부 형태	영연방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양원제)					
	○ Queen Elizabeth Ⅱ 영국 여왕					
	- 영국 여왕은 상징적 존재로 실질적인 권한은 없으며 연방정부는					
	연방 총독(Governor-general), 주정부는 주 총독(Governor)이 영국					
국가 원수	여왕을 대리해 연방 및 각주를 대표함.					
	○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총리(실권자, 자유당)					
	- 2015년 9월 15일 자유당의 Malcolm Turnbull 총리가 당선됨					
	Zolo E / E Zo E					





### 2. 지도 및 국기

○ 지도 (6州(state) 2準州(territory))



- 빅토리아 주(VIC) / 타즈마니아 주(TAS)
- 뉴사우스웨일스 주(NSW)
- 퀸즐랜드 주(QLD)
-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SA)
-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WA)
- 노던 준주(Northern Territory, NT)
-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CT)

#### ○ 국기



(좌측) 유니언 잭 : 영연방의 일원임을 상징

(하단) 칠각 별 : 연방의 별(Star of Federation)

\* 호주 6개 주와 준주를 뜻하는 7각 별

(우측) 5개의 별 : 남십자성을 상징

\* 남반구에서만 볼 수 있는 별자리





# II. 무역관 관할지역(Victoria, South Australia, Tasmania) 개황

#### 빅토리아주(VIC)

#### 1. 일반 현황

○ 면적 : 22만 km² (한반도 면적과 비슷)

○ 인구 : 624만명 (호주내 2위)

○ 주도 : 멜버른(Melbourne)

- 주수상 : 다니엘 앤드류(Mr. Daniel Andrews) (노동당)

#### 2. 산업특성

#### 1) 호주 제조/교육업의 중심지

- 자동차산업 및 R&D를 기반으로 하는 호주 제조업의 중심지
  - 제조업(약 85%), 화학.의료/정보통신(약 50%), 제약업체(약 40%) 등이 빅토리아주에 소재
- 호주 유명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역본부가 다수 소재
  - 호주업체: BHP, Rio Tinto, Optus, Coles, Myer, Target 등
  - 자동차: Toyota, Ford, GM Holden 등
  - 정보통신: Oracle, IBM, Nokia, Phillips, EDS 등

### 2) 호주전체 수입시장의 30% 이상 점유

- 멜버른항이 최대 수입통관 항구(호주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40% 커버)
- 인구 밀집지역이 산재되어 있는 호주의 지리적인 특성상 주별로 독자적인 상권 구축 (시드니 상권과는 별개)

### 3) 과학기술 관련 산업의 발달 및 연구개발 활발

- 빅토리아 주를 아시아태평양지역 멀티미디어산업 거점화 육성 추진
  - 게임산업의 발달 및 IBM, Oracle사 등의 아시아시장 진출 거점 활용
- 호주의 국가과학기술연구개발기관인 CSIRO 본부 소재



#### 남호주주(SA)

#### 1. 일반 현황

- 면적/인구 : 98.3만 km² / 172만명 (호주내 5위)
- 주도 : 애들레이드(Adelaide)
  - 주수상 : 제이 웨더릴(Mr. Jay Weatherill) (노동당)

#### 2. 산업특성

#### 1) 호주 자동차 및 부품 등 제조 산업 중심의 발달

- 자동차 부품 생산업의 중심 허브(Hub)
  - GM Holden 제조 공장, SAGE Automotive, SMR Automotive Australia 등이 있으며 자동차 산업의 다각화, 시장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짐
  -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주정부 차원 전략 프로그램 운영

#### 2) 호주 조선산업 주축지

○ 조선업 성장에 적합한 위치와 시설·기술의 결합지로 호주 내 가장 큰 조선 산업의 주축지이며 '18년 Offshore Patrol Vessel(호주 해군 잠수함) 건조 예정

#### 타즈매니아주(TAS)

#### 1. 일반 현황

- 면적 : 6.7만 ㎢ / 인구 : 51.9만명 (호주내 6위)
- 주도 : 호바트(Hobart)
  - 주수상 : 윌 호드만 (Mr. Will Hodgman) (자유당)

#### 2. 산업특성

### 1) 1차 산업의 주요 생산지

○ 일반작물(감자, 완두콩, 콩, 당근 등 야채와 과일), 수산물(연어, 굴, 전복 등)의 주요 생산지로 품질이 호주에서 가장 우수하며, 일반작물의 생산은 타즈매니아의 경제 활력의 주요 요소임

### 2) 호주내 풍부한 천연자원량 보유지

○ 타즈매니아는 호주 전역 중 다양한 지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단위 지역당 가장 풍부한 천연자원량을 보유하고 있음





# Ⅲ. 호주 경제/무역 동향

#### 1. 호주 경제 특징 및 최근 동향

### □ 주요 경제 지표 및 무역 규모

연간 GDP	USD 1조 3,597억 (13위)
GDP 연간 성장률	2.6%
1인당 GDP	USD 55,215 (9위)
실 업 율	5.5%
화폐 단위	Australian Dollar (AUD)
환 율	AUD 1.00 = USD 0.80 / AUD 1.00 = KRW 904.97(원)
외환 보유고	USD 59,631백만(2017.7월)
교역 규모	수출: USD 1,925억 (2016년) 수입: USD 1,893억 (2016년)
대한 교역 규모	○ (대한) 수입(2016년): USD 8,098백만 (-27.4%) - 주요품목: 자동차 및 부품, 석유제품, 철구조물, 가전제품 등 ○ (대한) 수출(2016년): USD 12,861백만 (-3.2%) - 주요품목: 철광, 유연탄, 원유, 육류, 당류 등

<sup>\*</sup> 자료 : 국제통화기금(IMF 2017), 호주 통계청(ABS 2016), Global Atlas(2016) 등

### □ 호주 경제의 특징

- 제조업 기반 취약, 서비스업 · 1차 산업 위주
  - 서비스업이 전체 GDP의 75.1%를 차지
  - 부동산·비즈니스 서비스, 금융 보험, 건설, 의료 등 발달

#### <호주의 산업별 GDP 비중>

구 분	농림수산	광업	건설	제조업	서비스업
GDP 비중	2.4%	7.4%	8.7%	6.4%	75.1%

\* 자료: Australia Benchmark Report 2017





#### ○ 광업 부문

- 광산붐이 사실상 종료됐음에도 불구, 여전히 호주 경제를 이끄는 주요 산업
  - · 자원 부문 투자는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간의 투자 여파로 건설업 등 연계 산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
  - · 광물 자원 수출은 1,744억불로 호주 전체 상품 수출의 70.6% 차지

#### ☞ 호주의 주요 광물자원

· 석탄 : 매장량 5위(10%), 생산량 4위(4.7억톤)

· 철광석 : 매장량 1위(28%), 생산량 2위 (4.8억톤)

· 원유 : 매장량 42억 배럴(0.3%), 세계 24위

· 천연가스 : 매장량 12위(2.0%), 수출 24억불

· 매장량 세계 1위 : 금(17%). 우라늄(29%). 니켈(24%) 등

· 기타 : 보크사이트(매장량 2위), 코발트(매장량 2위), 희토류(매장량 4위) 등

\* 자료: Australia's Identified Mineral Resources 2016,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2

#### ○ 농목축업 부문

• 면화 : 20억불

- 농목축 품목 생산 및 수출 대표국가로 호주 전체 GDP의 2.4% 비중(508억불)

#### ☞ 호주의 주요 농목축 자원

· 밀 : 80억불, 27백만톤 생산(수출량 10위)

• 소고기 : 85억불, 2,169천톤 생산

· 보리 : 24억불, 2백만톤 생산(수출 12억불)

(수출 1,020톤, 세계 2위)

· 카놀라 : 21억불, 2.4백만톤 생산

· 양고기 : 26억불 / · 양모 : 25억불

712-11-21 12, 2.4 122 32

· 우유 : 47억불, 9,239리터 생산

○ 동부 해안 지대에 인구 및 경제 활동 집중

- 동부 3개 주(뉴사우스웨일스주, 빅토리아주, 퀸즐랜드주)가 인구의 77%, GDP의 71.7% 점유

### <호주 주요 주별 인구비중>

구 분	NSW	VIC	QLD	기 타
GDP 비중	32%	25%	20%	23%
(인구)	(779만명)	(624만명)	(488만명)	(542만명)

\* 자료 : ABS 2016(호주 통계청)



### □ 최근 호주 경제동향

- 세계적 경기 침체로 성장 둔화가 예측되나, 경제 기반은 대체로 안정적
  - (제조업 약화) 고비용 제조산업 구조 심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3대 자동차 제조공장 철수 등 2차 산업 침체
    - ·호주 자동차 제조업의 중심지(80%)였으나, 호주 내 3대 글로벌 완성차 제조공장(GM-홀덴, 도요타, 포드) '17년 10월부 전면 철수
      - \* 高비용 구조: 高인건비(시간당 임금 A\$18.29으로 세계 최고 수준) + 高에너지 비용
  - (경기침체)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및 세계적 경기 침체 영향
    - · 중국의 경기 둔화(호주 수출·입 1위국) 등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한 원자재 수요 감소로 관련 산업 위험요인 증가
  - (경제기반 안정) 주요 광물자원 보유국, 농목축·금융산업 강국
    - · 전통적인 광물부국이자 농목축산업 강국인 호주 경제 기반은 대체로 안정적
    - · 1차 산업과 함께 건설·금융·부동산·교육(유학) 등의 3차 서비스업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저성장 국면 돌입
- 한국 기업 시사점
  - 한-호주 FTA 적극적 활용
    - · 한-호주 FTA가 2014년 12월 12일 정식 발효됨에 따라 2015년 1월 1일 2차 관세 인하 돌입
    - ·하지만, 호주의 주요 교역 대상국이자 우리의 경쟁 국가인 일본('15.1.15), 중국('15.12.20)의 FTA가 발효되고, TPP가 타결('15.10.5) 됨에 따라 FTA 관세 인하로 인한 이점이 상쇄되었고 가격 경쟁이 심화 될 전망
  - 호주 정부 경제 부양정책 활용
    - ·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인 호주 정부 경제 부양정책을 활용, 인프라 프로젝트 및 관련 투자에 참여 고려
    - 신재생에너지, 첨단과학 등 미래형 산업 육성 및 문화 교류 적극 활용





#### <호주 주요 경제지표 >

항목		OECD		EIU			NAB		
8 =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2.5	2.5	2.8	2.5	2.7	2.2	2.6	2.3	2.9
민간소비(%)	2.7	2.5	2.4	2.7	2.4	1.9	2.5	2.5	-
고정투자(%)	-2.7	0.3	1.6	-2.7	0.9	0.4	-0.7	-0.7	-
실업률(%)	5.7	5.5	5.4	5.8	5.6	5.9	5.7	5.6	5.3
소비자물가(%)	1.3	1.9	2.0	1.5	1.9	2.0	2.2	2.2	2.4
A\$:U\$ 환율	-	-	-	0.84	0.70	0.63	0.68	0.68	0.73

- \* 자료: OECD, EIU, National Australia Bank (NAB)
  - 자원가격 하락, 제조업 위기, 광산개발 및 아시아 의존도 심화 등 위험 요인 잠재
    - 2018년 성장 예상치는 2.8%로 여타 선진국 대비 양호하나, 다수의 위험요인 잠재
      - · 글로벌 경기 침체 심화, 수출 비중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자원수요 감소 및 국제 원자재 시세 하락 등의 부정적인 외부환경 심화
      - · 호주 경제를 견인해 온 광산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자원개발 붐이 둔화 조짐을 보임
      - ·제조업의 위기는 호주 경제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잠재

#### ○ 부문별 동향

- 2018년, 민간소비심리 약화
  - · '14년 4분기로 들어서며 회복세로 전환되었던 소비자 신뢰지수가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 증대로 '15년 2분기부터 다시 하락세 전환
  - ·호주 내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확장통화정책, 금리인하 등의 경기 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상승,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민간 소비 심리가 위축
  - ▶ 소비자 신뢰지수 : 105.0('13.12) →103.3('14.1) →92.9('14.4) →93.2('14.5) →94.9('14.7) → 94.0('14.9) →111.4('14.11) →111.6('14.12) →99.5('15.3) →102.4('15.5) → 99.5('15.8) →101.3('16.2) →99.1('16.3) →101.1('16.8) →102.4('16.10) → 101.3('16.11) →99.7('17.3) →97.9('17.7) →95.5('17.8) →97.9('17.9) → 101.3('17.10) \* 자료: West Pac(Australian economic reports)
- 유럽 재정위기 및 주요 수출시장 경제둔화로 금리인하 지속
  -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2011년 11월부터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정책 실시,





'13. 8월 2.5%로 인하 후 한동안 유지되다가 '16. 5월 최초로 1%대 금리 인하

- · 이는 호주중앙은행(RBA)이 설립된 196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임
- 낮은 금리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및 경기 침체 지속
- ▶ 금리추이: 4.75%('11.9)→4.5%('11.11)→3.75%('12.5)→2.75%('13.5)→2.5%('13.9)→2.5%('14.12)→2.25%('15.2)→2%('15.6)→2%('15.9)→2%('15.12)→2%('15.9)→2%('16.4)→1.75%('16.5)→1.75%('16.7)→1.5%('16.11)→1.5%('17.3)→1.5%('17.7)→1.5%('17.10) \* 자료: RBA(Reserve Bank of Australia)
- 호주달러 가치 변동성 심화
  - ·지난 10년 사이 호주 달러화 가치 변동 심화
    - ▶ U\$ 대비 A\$ 추이: 60%(2004) → 110%(2012-13) → 90%(2014) → 75%(2015) → 74%(2016) → 75%(2017) \* 자료: RBA(Reserve Bank of Australia)
  - · 2013년 4월까지 1.02~1.04미달러 수준의 강세를 지속하던 호주달러는 2014년 9월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음
    - ▶ US\$ 1 / AS\$ 1 : 0.9649('13.5)  $\rightarrow$  0.8947('13.8)  $\rightarrow$  0.9309('13.9)  $\rightarrow$  0.8948('13.12)  $\rightarrow$  0.9319('14.5)  $\rightarrow$  0.9324('14.7)  $\rightarrow$  0.8752('14.9)  $\rightarrow$  0.8202('14.12)  $\rightarrow$  0.7634('15.3)  $\rightarrow$  0.7680('15.6)  $\rightarrow$  0.7010('15.9)  $\rightarrow$  0.7306('15.12)  $\rightarrow$  0.7140('16.2)  $\rightarrow$  0.7522('16.7)  $\rightarrow$  0.7398('16.11)  $\rightarrow$  0.7420('17.5)  $\rightarrow$  0.7581('17.7)  $\rightarrow$  0.8000('17.9)  $\rightarrow$  0.7878('17.10)  $\rightarrow$  ₹. ВВА
- 고용은 일자리 창출력 약화 등으로 위축
  - · '11년 자원분야 고용증대로 실업률이 5%대로 하락하는 등 호조를 보였으나 제조업 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15년 최고 6.4%까지 상승하다가 현재 5%대 수준임
  - ▶ 실업률 추이: 6.0%('14.2)→5.8%('14.5)→6.0%('14.7)→6.4%('15.3)→6.0%('15.5) →6.3%('15.7)→5.9%('15.12)→5.8%('16.1)→5.7%('16.7)→5.6%('16.10)→5.9%('17.4) →5.5%('17.5)→5.6%('17.7)→5.5%('17.10) \* 자료: ABS(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 · 홀덴, 포드 등 대규모 제조기업이 호주에서 철수 예정이며, 쾬타스 항공 등 굴지의 기업이 대규모 인원 감축을 단행하고 있어 당분간 고용시장 위축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호주의 교역 동향>

(단위: US억\$, %)

구 분	2014		2015		2016		2017.10월	
丁 正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출	2,400	-5.01	1,877	-21.80	1,925	2.57	1,915	26.30
수입	2,275	-2.01	2,003	-11.94	1,893	-5.49	1,841	17.52

\* 자료: Global Trade Atlas





#### 2. 한-호 무역 동향

□ '17년 11월까지 수출은 189.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78.1% 증가하여 대폭 개선되었으며, 수입도 174.8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28.2% 증가

#### <연도별 대호주 수출입 현황>

(단위: US백만\$, 증가율%)

구분	2014	2015	2016	2017.11월
수출	10,283(7.5)	10,839(5.4)	7,501(-30.8)	18,989(178.1)
수입	20,413(-1.8)	16,451(-19.4)	15,176(-7.7)	17,483(28.18)
무역수지	-10,130	-5,612	-7,676	1,506

- \* 자료: Global Trade Atlas
  - 지난 '16년 세계적 경기 침체 영향으로 석유 및 역청유 등, 철강구조물 등의 수출이 대폭 하락하여 수출 실적이 급감하였으나, '17년 현지 LNG 개발프로젝트에 따른 특수선박 및 시추대와 석유 및 역청유 등의 수출 실적이 대폭 개선되었으며, 석탄, 석유가스, 철광 등의 수입은 증가하여 수출입 실적이 안정세로 전환
  - (수출품목) 석유 및 역청유, 축전지, 철·비합금 형강 등 품목의 수출 실적이 대폭 개선되었으며, 화물자동차, 자동차 부품, 텔레비전은 수출 실적이 감소함. 이외 대다수의 제품들이 수출 유지 혹은 소폭 증가세를 보임
    - \* 2017년 까지 호주에 소재한 자동차 제조업체인 GM-홀덴, 포드, 토요타가 철수를 결정함에 따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관련 품목의 수출금액이 하락





# <대호 주요 수출 품목>

(단위: U\$백만, %)

	프무머	20	15	20	16	2017.11월		
순위	품목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특수선박 및 시추대	1,144	495.8	-	_	10,317	_	
2	석유 및 역청유	3,942	-5.7	2,723	-30.9	3,691	49.7	
3	승용 자동차	1,675	-5.7	1,871	11.7	2,074	22.5	
4	텔레비전	117	-12.7	165	41.0	146	-6.4	
5	축전기	92	5.7	101	9.8	127	36.6	
6	수산화나트륨	93	-5.1	85	-8.6	104	46.5	
7	자동차 부품	179	-17.5	154	-14.0	99	-31.7	
8	알루미늄 합금	88	76.0	69	-21.6	91	46.8	
9	종이 및 판지	104	-18.1	81	-22.1	74	0.0	
10	화물자동차	91	28.2	81	-11.0	74	-5.1	
11	석유코크스	54	-27.0	43	-20.4	85	117.9	
12	철, 비합금 형강	34	-10.5	39	14.7	71	91.9	
13	고무타이어	76	-20.8	71	-6.6	65	0.0	
14	냉장고	62	-8.8	64	3.2	65	12.1	
15	수송용 자동차	42	_	56	33.3	65	30.0	
16	철 평판압연 제품	54	10.2	45	-16.7	61	56.4	
17	불도저	43	-39.4	52	20.9	59	25.5	
18	담배	57	307.1	52	-8.8	48	-2.0	
19	절연 전선 및 케이블	53	-31.2	41	-22.6	47	34.3	
20	철,평판압연 제품	20	-64.3	22	10.0	41	127.8	

\* 자료 : 무역협회





○ (수입품목) 석탄, 철광, 석유가스 등의 원자재 수입이 대폭 증가한 반면, 석유 및 역청유(원유)는 '15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이외 대다수의 품목들은 소폭으로 수입 유지 혹은 증가세를 보임

### <대호 주요 수입 품목>

(단위: U\$백만, %)

순위	품목명	2015		20	16	2017.11월		
正刊	- TI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석탄 및 유사 고체연료	4,793	-13.0	4,079	-14.9	5,346	51.4	
2	철광	3,320	-41.0	2,837	-14.5	3,272	29.9	
3	석유가스	996	-6.0	1,846	85.3	2,580	58.6	
4	사탕수수 및 자당류	400	7.8	636	59.0	696	19.8	
5	알루미늄의괴	687	22.0	751	9.3	648	-4.3	
6	냉동 쇠고기	671	19.8	667	-0.6	611	-5.7	
7	동광	611	-1.3	578	-5.4	565	-2.2	
8	석유 및 역청유(원유)	960	-55.8	520	-45.8	527	8.9	
9	아연광	345	40.2	276	-20.0	390	54.8	
10	냉장 쇠고기	302	5.2	329	8.9	303	-1.0	
11	밀 및 메슬린	311	-11.1	266	-14.5	244	-5.8	
12	망간광	123	-27.6	111	-9.8	182	93.6	
13	연광	224	-7.1	208	-7.1	143	-31.3	
14	己	256	84.2	175	-31.6	133	-13.1	
15	면양 및 산양 고기	49	22.5	64	30.6	104	79.3	
16	방사선원소	79	107.9	30	-62.0	79	163.3	
17	식용 설육	114	20.0	99	-13.2	89	-3.3	
18	양모	80	37.9	88	10.0	76	-6.2	
19	사료용식물	53	-8.6	47	-11.3	59	34.1	
20	착색제 및 조제품	58	123.1	54	-6.9	59	20.4	

\* 자료 : 무역협회



#### 3. 한-호 투자 동향

### □ 한국의 대호 투자

- '17년 9월 기준, 한국의 대호주 투자 신고건수는 74건, U\$ 4.8억, 투자금액은 U\$ 6.0억으로 나타남
  - 한국의 대호주 투자는 광업과 금융 및 보험,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을 중심으로 진행
  - ·광업 U\$ 252백만, 금융 및 보험 U\$ 122백만, 부동산업 및 임대업 U\$ 105백만, 도매 및 소매업 U\$ 55백만 순
- 한국의 대호투자 누계('68-'17.9)는 신고기준으로 1,866건, U\$ 198억
  - 업종별로는 광업 U\$ 14,715백만, 부동산 및 임대업 U\$ 2,241백만, 제조업 U\$ 740백만, 운수업 U\$ 637, 금융 및 보험업 U\$ 468백만 순

### <한국의 대호 투자 추이>

(단위: US천\$, 건)

연 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2007	120	53	155,372	142,816
2008	141	57	653,568	579,940
2009	127	34	1,246,186	235,865
2010	100	34	764,173	562,795
2011	87	32	4,114,669	1,352,607
2012	78	23	4,406,856	2,195,793
2013	62	17	1,577,322	1,334,326
2014	66	11	806,578	1,497,498
2015	68	11	657,540	808,632
2016	115	35	1,594,170	847,140
2017.3Q	74	22	485,274	604,126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대호주 진출기업은 자원개발 및 현지 판매법인 중심 38개사 진출

#### □ 우리나라 주요 진출기업

- 자원개발기업 : 포스코, 한전, SK네트웍스 등

- 종합상사 : 포스코대우, 현대 종합상사, 삼성물산, GS 글로벌

- 공기업: KOTRA,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산업은행

- 현지판매법인: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대우전자,

대한전선, LS전선,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농심, 넥센타이어,

인오션. GS 건설 등

- 서비스업: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현대상선, KEB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 의료제약 : 뉴트리바이오텍

#### □ 호주의 대한 투자

- 2017년 3분기, 호주의 대한국 투자는 신고기준 U\$ 2,325만 기록, 전년 대비 대폭 감소
  - 호주 해외직접투자는 미국(24.5%), 영국(8.6%), 싱가포르(4.0%), 캐나다(3.7%) 등 영미권에 40%이상 집중되어 있으며 대한 투자는 0.5% 내외

### <호주의 대한 투자 추이 >

(단위 : US천\$, 건)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3Q
신고 건수	25	27	21	29	31	45	14
신고 금액	90,889	152,569	50,282	139,832	85,193	79,157	23,250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호주의 대한 투자 누계 ('62~'17.9)는 신고기준으로 581건, U\$ 2,534백만
  - 호주의 대한 투자는 과거 Macquarie Bank와 같은 일부 기업의 활동에 집중되고 있었으나, 최근엔 일반제조업 IT, Biotech, 헬스서비스 등으로 다변화되는 추세임



### Ⅳ. 체류 참고자료

#### 1. 멜버른 지역 기후

- 호주는 한국과는 정반대의 남반구에 위치한 곳으로 한국의 4계절과 정반대의 계절로 생각하면 되나, 대륙의 크기가 방대하여 지역마다 약간의 기후 차이가 있음
- 빅토리아주 멜버른 날씨는 '하루에 4계절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변화무쌍함. 보통 여름은 12월~2월에 평균 15~26°C로 건조하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가을은 3월~5월에는 더위가 풀리며, 겨울은 6월~8월에 평균 14도 내외를 기록하며 쌀쌀해졌다가 봄 9월~11월에 다시 따뜻해지는 일반적인 온대기후를 보임
- 연평균 강우량은 약 600mm이며 가장 습한 달은 10월임.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간편하게 걸칠 수 있는 긴소매를 준비하는 것이 좋음

#### < 멜버른 월별 평균 기온 >

(단위: °C)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0	20.2	18.3	15.3	12.8	10.4	9.9	10.8	12.4	14.3	16.8	18.2
최고	25.8	26.1	23.8	20.2	17.0	14.2	13.7	14.8	16.9	19.6	21.6	23.9
최저	14.2	14.4	12.9	10.5	8.7	6.7	6.2	6.9	8.0	9.4	11.1	12.6

### 2. 입국시 통관 유의사항

- 식품, 목제품, US\$10,000 이상 현금 휴대시 입국신고서에 기재해야하며 신고서 기재시 세관검사를 받아야 함
  - 특히 김, 젓갈, 고추장, 오징어, 사과, 과자류 등 모두 해당되며, 포장 과자등 먹을 수 있는 모든 식품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중요)
- 통관 중 입국 신고서에 미신고 품목 적발 시 벌금(최하 US\$150)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통관 수속이 지연됨
- 운동화류 지참 시에도 입국신고서에 휴대하고 있음을 표기하고 신발 바닥에 흙이 묻어있는 경우 세관이 소독작업을 거친 후 통관을 허용하기 때문에 통관수속 지연의 원인이 됨



### 3. 환율 (2017.12.19. 기준)

- AUD 1.00 = USD 0.7648 / AUD 1.00 = KRW 833.10(원)
- 호주 내 미화는 통용되지 않으므로 호주화 환전은 필수이며 한국 내 환전이 유리함
- 호주내 환전은 소액의 경우 은행과 환전소의 차이가 없음

### 4. 팁, 카드결제 관련

- 팁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지불시에는 평균 식대의 10% 이하가 일반적임
- 카드결제는 비교적 수월한 편이나 아멕스나 다이너스를 거부하는 곳도 일부 있음
- 호텔, 레스토랑 등 신용카드 결제시 수수료(약 0.3%)를 지불하는 곳이 많음

### 5. 전화사용

- 공중전화 : 기본 50센트(시내)
- 한국으로의 전화
  - 다이얼: 0011-82-지역번호-전화번호/수신자부담전화 : 1800-88-1820
- 긴급 전화 : 000(화재, 경찰신고, 구급차 등)

### 6. 시내 교통

- 대중교통수단 : 트램(Tram)
  - 구간별 요금적용 : 기본요금 \$4.00(2시간내 무제한 이용 가능)
  - 교통카드 : 편의점 또는 뉴스 에이전시에서 Myki 카드구입(A\$6.00) 후 충전하여 사용
  - 노선도 : 시내 Tram 정류소(호텔내 안내 리플렛 등)
- 택시 : 전화로 예약
  - 택시요금 : (낮) 기본요금 \$4.20, \$1.622/1Km 부과(한국 대비 3배 수준)
  - 택시전화 : 13-2211(Arrow), 13-1008(Silver Top)



#### 7. 기타 특기사항

- 인터넷 사용 여건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며, 대부분의 호텔에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나 별도 사용료(보통 A\$20~30/1일)를 지불함
- 전압은 240볼트, 50Herz임. 한국산 전자제품 사용시, 삼각 플러그(일명 돼지코)가 필요함
- 호주에서는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는 실내금연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
- 차량 탑승시에는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이며, 미이행시 약 30만원의 벌금을 징수함

#### 8. 멜버른 시내 주요 식당

구분	식당명	전화	주소			
한식	Seoul House (서울 식당)	03 9663 8883	234 Russell St, Melbourne VIC 3000			
한식	Guhng (궁)	03 9041 2192	19 McKillop St, Melbourne VIC 3000			
한식	Oriental Spoon (오리엔탈 스푼)	03 9043 5199	291 Elizabeth St, Melbourne VIC 3000			
한식	Mahn doo (만두)	03 9670 1167	187 King St, Melbourne VIC 3000			
양식	Rare Steakhouse	02 9663 3373	6/61 Little Collins St, Melbourne VIC 3000			
양식	Meat&Wine	03 9696 5333	Freshwater Place, 3 Queensbridge St, Southbank VIC 3006			
일식	Nobu	03 9292 5777	Crown Towers Melbourne, 8 Whiteman St, Southbank VIC 3006			
일식	Kenzan	03 9654 8933	56 Flinders Lane Collins Place, Melbourne 30			
중식	Shark Fin Inn	03 9662 2681	50 Little Bourke St, Melbourne VIC 3000			
중식	Red Emperor	03 9699 4170	3 Southgate Ave., Southgate Melbourne, Southbank VIC 3006			
아시 아식	Mamak	03 9670 3137	366 Lonsdale St, Melbourne VIC 3000			
그리 스식	Stalactites Restaurant	03 9663 3316	177-183 Lonsdale St, Melbourne VIC 3000			





## ∨. 무역관 및 직원 연락처

### 1. 멜버른 무역관

○ 주소 : Level 12, 468 St. Kilda Road, Melbourne, VIC 3004

- 전화 : +61-(0)-3-9860-0500 / 팩스 : +61-(0)-3-9860-0509

### 2. 개설일자 및 법적지위

개설일자	바코카카이	인원(명)				
기 열 현사" 	법적지위	본사	현지	계		
1973.08.15.	외국정부기관	2	9	11		

3. 관할지역 : Victoria, South Australia, Tasmania State

### 4. 직원 및 기타 연락처

구 분	성 명	전화번호	비고		
관 장	이정훈 관장	+61 3 452-616-511	무역관 업무 총괄		
부 관 장	황성운 과장	+61 3 433-361-910	마케팅/조사/취업,기획예산		
* 멜버른	김성효 총영사	(03)9533-3800	-		
영사관	권오정 영사	(03)9533-3813	-		





# Ⅵ. 기타 정보

#### 1. 호주 역사

#### □ 유럽인 출현 이전

- 최초의 호주 원주민 (Aborigine/애보리지니)들은 아시아 남동부 해안이 호주 대륙과 근접하였던 6만년 전부터 살아온 것으로 알려짐. 호주 원주민들은 몇 백 개의 소규모 종족으로 구성되었으며, 유럽 정착민들이 들어오기 이전의 원주민 수는 60~100만명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됨
- 유럽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당시 호주 원주민들은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이나, 미국의 인디언 등과는 달리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며 1788년에는 백인이 호주의 주인이 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음

#### □ 1800~1900년

- 17세기 초 네덜란드 및 포르투갈인에 의해 호주 대륙이 발견되었으며 1688년 영국인 윌리암 담피아가 대륙 북서부 해안에 상륙하고, 1770년에 영국인 선장 "제임스 쿡"이 동부 해안인 BOTANY BAY에 상륙하여 영국 영토로 선언함
- 그 후, 1788년 필립 함장이 11척의 선박에 1,030명(이중 736명이 죄수)의 1차 이주민을 인솔하고 호주에 도착, 죄인 유배지를 건설함
- 1823년부터 죄인 유배지에서 식민지로 전환, 6개 식민지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1840년부터 죄수 이민이 점차 자유 이민으로 대체됨
- 1850년대 호주에서 금광이 발견되어 골드러시가 시작되면서 중국인 유입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1857년에는 23,623명에 달함. 중국인의 급증으로 유럽인은 중국인들의 하인계급으로 타락된다는 공포가 확산되면서 백호주의 법을 제정하기도 함

### □ 1901년 이후(연방)

- 호주 연방법이 1900년 7월 빅토리아 여왕의 승인을 받고, 1901년 6개의 식민지를 포함하는 연방정부가 수립되고 연방의회가 멜버른에 설치됨
- 1913년 CANBERRA를 연방의 수도로 지정하여 1927년부터 천도가 시작되었으며, 1931년 영국으로부터 완전자치를 승인 받음
- 1956년에는 멜버른 올림픽을 개최하였고 1962년에는 원주민 참정권을 인정함. 1971년에 OECD에 가입되었으며 1975년 파푸아뉴기니가 호주에서 독립하였고, 2015년 9월 자유당의 Malcolm Turnbull이 29대 총리로 당선되어 현재에 이름



### 2. 빅토리아주 관광명소

### □ 그레이트 오션 로드(Great Ocean Road): 왕복 10시간



멜버른 남서쪽의 그레이트 오션로드는 토키(Torquay)에서 론(Lorne), 아폴로베이(Apollo Bay), 포트캠벨(Port Campbell) 국립공원, 와남불(Warmambool)에 이르는 300㎞의 해안길로 해식작용으로 형성된 온갖 형상의 바위섬과 절벽이 자연과 인간이 만든 최고의 걸작으로 꼽힘

1919년 공사가 시작되어 앵글시(Anglesea)에서 아폴로베이 구간까지 1932년에 완공된 곳으로 제1차 세계대전 후 호주 정부는 퇴역 군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안선이 아름다운 이곳에 삽과 곡괭이만으로 공사를 하여 세계적 명소를 탄생시켰음



포트캠벨 국립공원의 12사도(Twelve Apostles)는 석회암으로 형성된 해안이 거센 파도에 깎여 아치형 통로가 생기고 다시 거친 파도와 바람에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12개의 작은 바위섬이 예수의 열두제자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임. 이곳은 지금도 해식작용에 의해 매년 13㎝씩 깎여나가고 있음.

포트캠벨은 호주의 가장 아름다운 국립공원 중하나로 예측할 수 없는 기상변화로 1800년대영국과 멜번을 오가던 160여척의 선박들이근처에서 침몰했음. 특히 로치아드 조지(Loch Ard Gorge)는 영국의 로치아드(Loch Ard)호의 이름을 딴곳으로 1878년 3개월의 항해 끝에 멜번에 도착,정박을 눈앞에 두고 Muttonbird Island의 절벽에부딪혀 난파되어 54명 중 19세 승선자 Tom과 18세 승객 Eva만 극적으로 살아남은 곳임





### □ 로얄 보태니컬 가든(Royal Botanic Garden)



19세기 중반 조성된 화원으로 전체면적이 약 36ha(4만평)인 호주 최대 규모를 자랑함

원래는 시내외곽에 위치한 습지대였으나, 지금은 멜번 중심에 위치한 도심 공원으로 유명하며, 영국식 정원 설계에 따라 건설되었음

빅토리아주 총독 관저(Government House)가 공원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쟁기념관(Shrine of Remembrance)이 공원 서쪽에 위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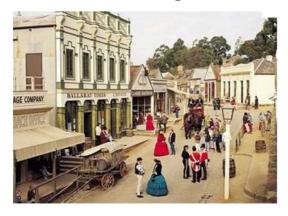
### □ 단데농마운틴 퍼핑빌리 (Dandenong Mountain Puffing Billy)



멜버른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단데농 마운틴에는 산림지대를 통과하는 100년 된 증기기관차 퍼핑빌리(Puffing Billy)가 있음

출발역인 벨그레이브 역을 출발하여 종착역인 젬부르그 역까지 약 1시간 20분을 달리며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울창한 수목으로 뒤덮인 원시림을 달리는 기분이 색다름

### □ 소버린힐(Sovereign Hill): 왕복 4시간



1851-1861년의 골드러시 시대를 재현해 놓은 한국의 민속촌 같은 곳으로, 실제 지하 금광을 따라 탐험할 수 있음

중국인 마을과 채굴광, 광산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리에 걸린 간판이며 소품이 모두 실제로 사용했던 것이며 일부 가게(Bakery 등)는 현재 상업을 하고 있음





### □ 필립 아일랜드(Phillip Island): 왕복 5시간



필립 아일랜드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27~33cm 크기의 난쟁이 펭귄의 서식지로, 저녁나절에 바다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정겨운 펭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음. 펭귄의 귀가 시간은 계절마다 상이하므로 출발 전 확인이 필요함

### □ 유레카 타워(Eureka Tower)



유레카 타워는 높이 297.3m로 남반구 최고 높이를 자랑하며, 특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거주용 건축임 88층에 위치한 전망대에서 멜버른 정경을 한눈에 볼수 있으며 특히 꼭대기 층의 Edge에서는 투명한 유리 바닥 밑으로 지면을 볼 수 있어 스릴이 넘침 1850년대 골드러쉬 시절의 멜버른의 명성을 말해주듯 건물 꼭대기는 24K 순금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유레카"라는 이름은 골드러쉬 시절 영국의 혹독한 세금정책에 반발하여 광부들이 일으킨 호주의 유혈충돌인 "Eureka Revolution"에서 따옴

### □ 피츠로이 정원(Fitsroy Garden)



멜버른 시내 서쪽에 위치한 정원으로 빅토리아주가 뉴사우스웨일즈주(NSW)로부터 분리될 당시 NSW주 총독인 찰스 피츠로이(Charles Fitzroy)경의 이름을 따랐으며 하늘에서 보면 영국의 유니온잭의 모양을 따라 공원 내 산책로를 만든 것을 볼 수 있음



1993년 호주 대륙을 발견한 제임스쿡(James Cook) 선장의 영국 생가를 분해, 모든 벽돌을 그대로 운반해 와서 이 정원에 복원하였음. 이곳에서 18세기 영국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전시품들이 보관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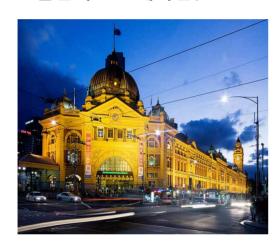
### □ 퀸 빅토리아 마켓(Queen Victoria Market)



멜버른 시내에 위치한 재래시장으로 1878년부터 오픈하였음

시장 이전에는 공동묘지였으나, 현재 멜버른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한국의 남대문 시장처럼 호주 서민들의 생활을 쉽게 엿볼 수 있는 곳임

### □ 플린더스 스테이션(Flinders Station)



호주의 최초의 기차역으로 시내를 통과하는 모든 열차들이 모두 이곳을 종착역으로 운영하고 있음 고풍스러운 인도풍의 건물로 멜버른 방문 시 꼭 한번은 접하는 곳이며, 2004년 국내에서 방영된 '미안하다. 사랑한다' 드라마를 비롯하여 네이버 카페 CF 촬영지로서도 알려져 한국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음

역 맞은편의 연방광장(Federation Square)에는 다채로운 공연이 많고 약속 장소로도 유명함



www.kotra.or.kr

